

## 5/10(화) 에스더 묵상 7

### 에스더 4:12-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개의 간청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임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왕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주신 자리라고 말합니다.

#### 모르드개의 믿음

모르드개의 간청을 듣고 에스더는 현재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전합니다(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만약 에스더도 잘못했다가는 왕의 도움은 커녕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왕에게 먼저 나아가 부름을 받지 못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아하수어로 왕의 권세와 왕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신처럼 높은 왕권을 가진 아하수어로에게 인정을 받은 하만이 제국의 2인자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 방자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도 궁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왕후 에스더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일로 에스더가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전합니다(13절,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14절,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농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4절에 나타난 모르드개의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제 아무리 하만의 계획이 치명적이다 할지라도 하만이 믿고 의지하는 아하수어로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그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롬 16:19하-20,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고하게 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칫 자신의 외모나 성품 등과 같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영적 권면을 합니다. 모르드개는 만일 에스더가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농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르드개가 의지하는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모르드개에 의해 입양되어 그의 가정에서 이러한 신본주의 믿음과 철저한 신앙 교육 아래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에스더의 결단

모르드개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에스더 또한 모르드개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은 감정적인 충동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개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은 신앙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가르친 신앙교육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이타적인 섬김과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모르드개 또한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에 화답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인 금식과 중보기도로 그녀를 돕게 됩니다(17절,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세상에서 성공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가지고 결코 자기 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는 그들이 당한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결단한 에스더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인물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우리는 모르드개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랑의 헌신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생명의 맛을 내는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실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국을 위한 기도:** 바이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미국/멕시코 국경, 우크라이나 문제, 인플레이션 등)을 잘 해결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험든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